

2021년 국내외 경제 및 산업 전망

I. 국내외 경제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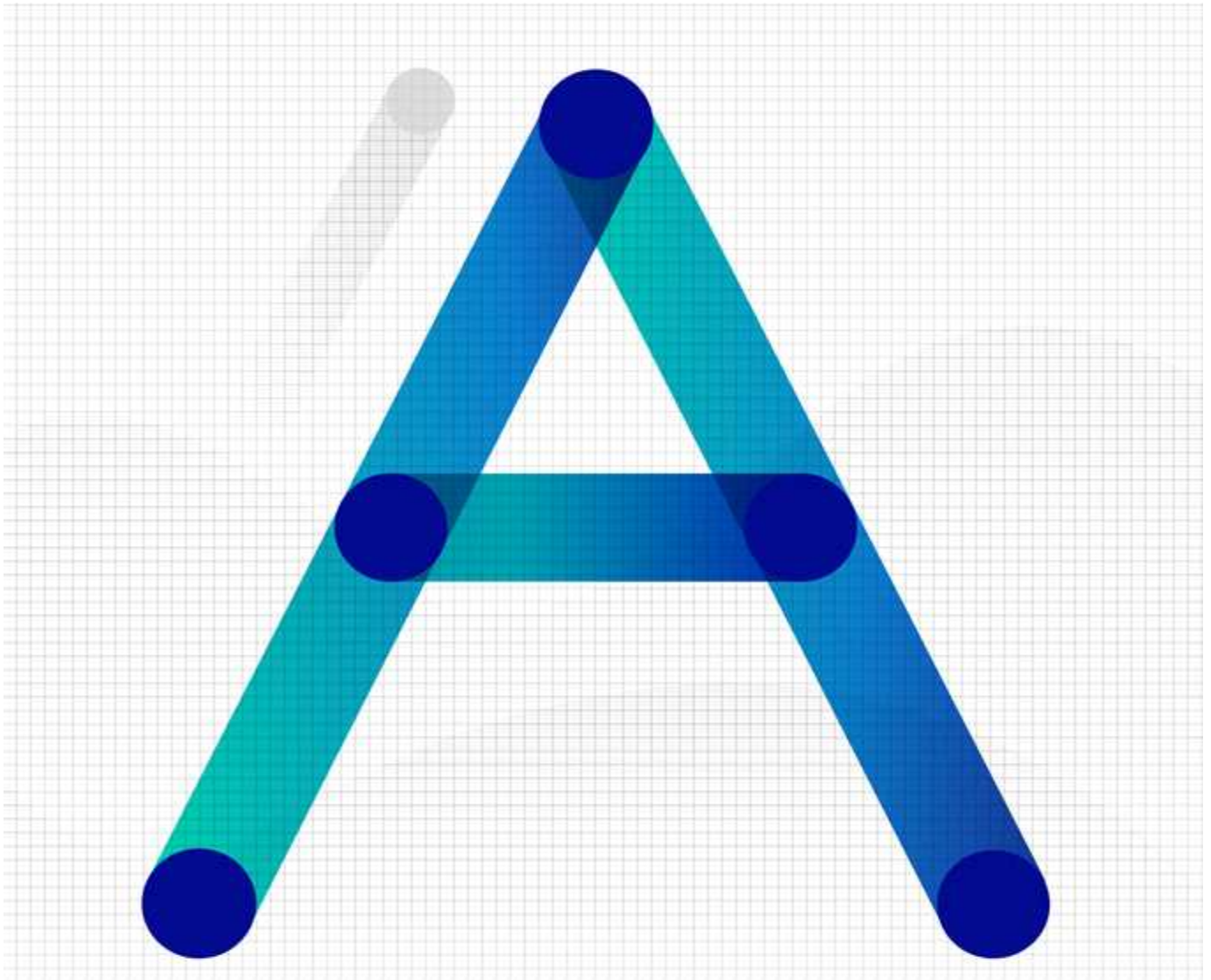
1. 세계경제전망
2. 국내경제전망

II. 주요 산업별 수출전망

1. 주요 수주산업
2. 주력 수출산업
3. 혁신성장산업
4. K-뉴딜 중점 산업
5. 코로나19의 수출 영향

작성

해외경제연구소 산업경제팀





작 성

선임연구원 양종서(3779-6679)

선임연구원 강정화(6255-5327)

선임연구원 김윤지(3779-6677)

선임연구원 성동원(3779-6680)

선임연구원 이미혜(3779-6656)

조 사 역 김찬원(6255-5709)



<요 약>

I. 대외 경제환경

□ '21년 세계 경제는 글로벌 교역의 점진적 재개, '20년 극심한 경기 침체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5%대 성장 전망

- 주요국의 봉쇄 완화와 대규모 부양책으로 '20년 5월부터 경제활동이 부분적으로 재개되며 코로나궤 충격에서 완만한 회복세
- **(미국)**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에 힘입은 소비 개선 흐름으로 3%대 성장이 예상되나, 미·중 갈등 심화 등은 하방 요인
- **(유럽)** '20년 역성장(-8.3%)에 대한 반작용으로 4~5%대 반등이 예상되나, 코로나 및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등에 따른 기업투자 위축, 관광산업 타격 장기화 등 민간부문 복원력 약화 우려
- **(신흥국)** 중국 경제의 빠른 재가동으로 6% 경제 성장이 기대되나, 선진국 대비 불충분한 정책 여력, 백신 보급 제약에 따른 코로나 종식 지연, 투자 자금 재유출 가능성 등 리스크 상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구 분	2020년 (IMF)	2021년 전망			
		IMF	OECD	한국은행	LGERI
전세계	△4.4	5.2	5.0	4.8	3.7
선진국	△5.8	3.9	-	-	3.2
미국	△4.3	3.1	4.0	3.4	3.2
유로	△8.3	5.2	5.1	3.5	4.0
일본	△5.3	2.3	1.5	2.1	1.9
신흥국	△3.3	6.0	-	-	4.1
아시아	△1.7	8.0	-	-	4.6
중국	1.9	8.2	8.0	8.1	5.0
인도	△10.3	8.8	10.7	-	4.1
한국	△1.9	2.9	3.1	2.8	2.5

주: IMF(10월), 한국은행(11월), OECD(9월), LG경제연구원(8월) 전망 기준



II. 대내 경제환경

□ 국내 경제는 민간소비 회복·수출 개선 등에 힘입어 3% 내외 성장 전망

- **(경제성장률)** 코로나19로 '20년 크게 하락한 민간소비가 개선되고 수출도 점진적으로 회복되며, 지연된 설비투자도 재개되는 등 경제활동 정상화 영향으로 '21년 3% 내외 성장

* 경제성장률 전망: (IMF) $\Delta 1.9\%$ ('20) $\rightarrow 2.9\%$ ('21) / (한은) $\Delta 1.1\%$ ('20) $\rightarrow 3.0\%$ ('21)

- **(상방 요인)**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조기 개발과 공급, 중국 경제 성장세 확대, 뉴딜 등 경기 부양정책 활성화 등
- **(하방 요인)** 코로나19 국내외 재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미·중 무역갈등 심화, 반도체 경기 둔화 등
- **(수출)** '20년 하반기부터 개선되기 시작한 수출($\Delta 6\%$ 내외)은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로 교역량이 확대됨에 따라 '21년에는 전년 대비 9~10% 증가 전망
- **(글로벌 교역신장률)** 코로나19 영향으로 '20년($\Delta 10.4\%$) 크게 위축됐으나, '21년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상품 교역 개선 추세가 이어져 8%대 증가 전망

* 세계교역신장률(IMF) : 3.9% ('18) $\rightarrow 1.0\%$ ('19) $\rightarrow \Delta 10.4\%$ ('20) $\rightarrow 8.3\%$ ('21)

- **(고용)** '20년 코로나19 충격으로 서비스업 중심으로 악화됐으나, '21년에는 수출 회복 및 대면 서비스 수요 회복 등에 힘입어 취업자수 13만 명 내외 증가 전망
- **(설비투자)** IT 부문의 반도체 중심 투자 개선세 지속, 비IT 부문의 지연된 설비 교체·신규 투자 재개, 정부 뉴딜 투자 등의 영향으로 4~5%대 성장 전망

실질 GDP 성장률 추이 및 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망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한은	LGERI	IMF
국 내 총 생 산(GDP)	2.0	$\Delta 0.7$	$\Delta 1.4$	$\Delta 1.1$	3.0	2.5	2.9
민 간 소 비 지 출	1.7	$\Delta 4.4$	$\Delta 4.1$	$\Delta 4.3$	3.1	2.2	-
설 비 투 자	$\Delta 7.5$	5.6	5.7	5.7	4.3	3.4	-
실 업 륜	3.8	4.3	3.7	4.0	3.8	4.0	4.1
소 비 자 물 가	0.4	0.6	0.5	0.5	1.0	1.0	0.9

주: 2020~2021년 수치는 한국은행(11월) 전망, IMF는 10월 전망 기준



Ⅲ. 주요 산업별 전망

1. 주요 수주산업

□ 해외건설은 전년 수준, 조선해양산업은 규제 강화 효과로 교체 수요 발생 전망

- **(해외건설)** 코로나19 및 저유가 기조가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1년 해외건설 수주는 전년과 유사한 280억 달러 전망
- **(선박)** 온실가스 규제가 더욱 강경해져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노후선에 대한 친환경 선박으로의 교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약 110% 증가한 215억불 수주 전망
- **(해양플랜트)** 코로나 이전 대비 저유가 기조로 시장 활성화 기대는 어려우나, 해양가스설비 중심으로 10억불 내외의 소량 수주는 가능할 전망
- **(해운)** 각국의 경기부양 노력 등으로 벌크선, 컨테이너선 등은 시황 개선이 기대되나, 탱커의 경우는 OPEC+의 석유 감산 유지 전망 등에 따른 수요 부족으로 개선 기대감 낮음

주요 수주산업 수주 전망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2024년 연평균 수주
해외건설	300 (34.5%)	280 (△6.7%)	250~350
선박	102.5 (△53.7%)	215 (109.8%)	240~270
해양플랜트	7.5 (△22.6%)	10 (33.0%)	5~20
해운(BDI*)	1,075 (△20.5%)	1,300 (20.9%)	1,400~2,000

자료 : 해외경제연구소 자체 전망

주: BDI(Baltic Dry Index)는 발틱해운거래소가 발표하는 종합운임지수로서, 전세계 교역량을 평가하는데 사용하며, 높을수록 해운업 경기가 호황임을 표시

주 : ()는 전년 대비 증감률



2. 주력 수출산업

□ 글로벌 경기 회복 및 기저효과로 수출증가율 개선

- **(반도체)** 글로벌 경기 회복, 수출단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약 5% 증가한 1,017억 불 수출 전망
* 고부가제품 비중 확대, D램 가격 상승세 전환
- **(자동차·자동차부품)** 주요 판매시장 수요 회복 등에 힘입어 '21년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14%, 자동차부품 수출은 11% 증가 전망
- **(일반기계)** '20년도 수출 부진에 대한 기저효과 및 각국 경기부양 정책에 의한 수요 등으로 전년 대비 8% 수출 증가 전망
- **(석유화학)**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불확실성, 글로벌 공급과잉 기조에도 불구하고, '20년 대비 유가 소폭 상승 및 비대면 산업 부문 수요 개선 등으로 6.6% 수출 증가 전망

주력 수출산업 수출 전망

단위 : 억 달러

구 분	2020년	2021년	2022~2024년 연평균 증가
반도체	969 (1.8%)	1,017 (5.1%)	4~5%
자동차 및 부품	540 (△17.5%)	610 (13.0%)	3%
일반기계	475 (△9.6%)	513 (8.0%)	5%
석유화학	347 (△18.4%)	370 (6.6%)	2%

자료 : 해외경제연구소 자체 전망

주 : ()는 전년 대비 증감률



3. 혁신성장 및 뉴딜산업

□ 글로벌 시장 성장세 지속으로 견조한 수출 증가세 유지

- **(이차전지)** 전기자동차용 수요는 증가하나 수출단가 하락 및 현지생산 증가로 인해 전년보다 소폭 상회한 50억 달러 전망
- **(미래차)**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21년 전기차 수출은 전년 대비 70% 증가한 70억 달러 전망
- **(통신장비)** 5G 투자 확대, 미국의 중국 기업 장비 사용 배제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약 16% 수출 증가 예상
- **(태양광)** 글로벌 태양광 수요는 증가하겠으나, 모듈 가격 안정화로 수출은 전년 대비 약 6% 증가한 18억 달러 전망
- **(의료·바이오)** 바이오시밀러 해외 판매 및 의약품 위탁생산(CMO) 수요 증가 등으로 수출 호조가 지속되어 전년 대비 약 20% 수출 증가 예상
- **(콘텐츠)** 게임·캐릭터·방송 등 수출 호조 지속, 수출지역 다변화 등으로 전년 대비 약 7% 수출 증가 예상

혁신성장 및 뉴딜산업 수출 전망

단위 : 억 달러

구 분	2020년	2021년	2022~2024년 연평균 증가
이차전지	48 (2.7%)	50 (4.2%)	5%
미래차(전기차)	41 (75.0%)	70 (70.0%)	70%
통신장비	10 (10.0%)	12 (16.0%)	13%
태양광	17 (△18.0%)	18 (6.0%)	5%
의료·바이오	69 (68.3%)	83 (20.0%)	10%
콘텐츠	112 (8.0%)	120 (7.0%)	7%

자료 : 해외경제연구소 자체 전망

주 : ()는 전년 대비 증감률



I. 국내외 경제전망

1. 세계경제전망

가. 경제 성장

□ 2021년 세계 경제는 글로벌 교역의 점진적 재개, 2020년 극심한 경기 침체에 따른 기저 효과 등으로 5%대 성장 전망

-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및 봉쇄조치로 전년 대비 4.4% 하락하겠으나, 2021년에는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며 5%대 성장 전망
- 2021년에도 코로나19 영향 및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속되겠으나, 2020년 하반기부터 강화된 회복세 영향으로 2021년 세계 GDP는 2019년 대비 0.6% 성장한 수준에 머물 전망
- 선진국은 2020년 5.8% 하락 뒤 2021년 3.9% 상승해 2019년 대비 약 2% 낮은 수준 유지
- **(미국)** 2020년 4.3% 하락했던 미국은 소비 중심 개선 흐름 지속, 적극적 재정·통화 정책으로 3%대 성장 전망, 미중 갈등 심화 등은 하방 요인
- **(유럽)** 회복세 부진으로 2020년 8%대 하락 뒤 기저효과 영향으로 2021년 5%대 성장하겠으나, 코로나19 이전 GDP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구 분	2020년 (IMF)	2021년 전망			
		IMF	OECD	한국은행	LGERI
전세계	△4.4	5.2	5.0	4.8	3.7
선진국	△5.8	3.9	-	-	3.2
미국	△4.3	3.1	4.0	3.4	3.2
유로	△8.3	5.2	5.1	3.5	4.0
일본	△5.3	2.3	1.5	2.1	1.9
신흥국	△3.3	6.0	-	-	4.1
아시아	△1.7	8.0	-	-	4.6
중국	1.9	8.2	8.0	8.1	5.0
인도	△10.3	8.8	10.7	-	4.1
한국	△1.9	2.9	3.1	2.8	2.5

주: IMF(10월), 한국은행(11월), OECD(9월), LG경제연구원(8월) 전망 기준



- 신흥국 경제는 중국 경제의 빠른 재가동으로 6%대 경제 성장이 기대되나, 선진국 대비 불충분한 정책 여력, 백신 보급 제약에 따른 코로나19 종식 지연, 투자 자금 재유출 가능성 등 리스크 상존
- (중국) 미국과의 무역 갈등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생산·투자·소비 회복세에 힘입어 8%대 양호한 경제 성장 전망

• 위험 요인 :

- ①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이 지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욱 강화돼 경기 회복이 지체될 가능성
- ② 미중 무역갈등 지속으로 인한 세계 교역 축소, 투자 위축 등 제조업 글로벌 밸류 체인 전반의 부정적 영향이 보다 심화될 가능성
- ③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합의 불발, 중동지역 산유국간 갈등으로 인한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 등 정치·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부정적 경제 효과 파급 가능성
- ④ 성급한 정책지원 철회, 금융 여건 긴축 등으로 기업 유동성 부족 및 파산 확산, 실업 증가 등 경기침체에 대한 국가 정책 대응 실패 가능성



나. 세계교역

□ 2021년 세계 교역량(상품·서비스) 증가율 8%대 전망

- 2020년 세계 교역량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자·기업의 최종 수요가 감소하면서 크게 위축돼 2009년 금융 위기 때와 유사한 10%대 하락
- 자본재·내구재 등 교역 비중이 높은 제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교역 영향이 적은 대면 접촉 분야의 위축이 두드러져 경제 충격 대비 교역량 하락 폭은 축소됨
- 2021년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상품 교역 개선이 이어지면서 세계 교역량 8%대 증가 전망, 서비스 교역 회복은 상대적으로 미진할 것으로 예측
- 수입은 선진국 2020년 11.5% 하락에서 2021년 7.3% 증가로, 개발도상국 2020년 9.4% 하락에서 2021년 11.0% 증가 전망
- 수출은 선진국 2020년 11.6% 하락에서 2021년 7.0% 증가로, 개발도상국 2020년 7.7% 하락에서 2021년 9.5% 증가 전망

세계 교역신장률 현황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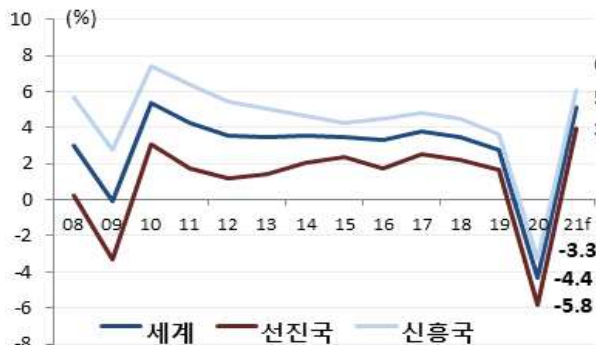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IMF	WTO	IMF	WTO	IMF	WTO
교역신장률	1.0	△0.1	△10.4	△9.2	8.3	7.2
수입	선진국	1.7	△11.5	-	7.3	-
	개발도상국	△0.6	△9.4	-	11.0	-
수출	선진국	1.3	△11.6	-	7.0	-
	개발도상국	0.9	△7.7	-	9.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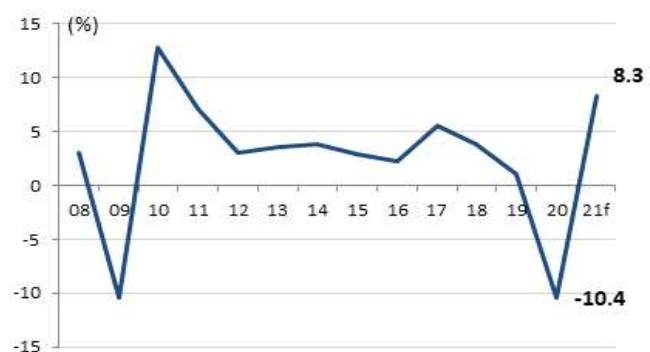
주: IMF는 상품·서비스 물량 기준, WTO는 상품 물량 기준

자료: IMF(10월), WTO(10월) 전망 기준

세계 경제성장률



세계 교역신장률



자료: IMF



다. 코로나19 영향

□ 코로나19 전개 양상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2021년 전망 오차 확대 가능

- 주요 전망 기관들은 2021년에도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동시에 진행되지만 글로벌 경제 활동 재개가 지속된다는 전제 하에 전망 제시
- 코로나19의 국지적 지역 감염은 2022년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코로나19의 전개 양상에 다양한 불확실성이 내포된 탓에 2021년 세계 경제 전망 오차는 크게 확대될 수 있음.
- 코로나19 재확산이 확대되고 국가별 봉쇄 조치가 다시 강화될 경우 기본 전망 하회, 백신·치료제 조기 개발과 공급이 이뤄지는 경우 기본 전망 상회 가능하나 각 경우 안에서 변수 존재
- 백신·치료제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생산량 확보, 보급까지 이르는 소요 기간 불투명
- 이에 따라 각 전망 기관들은 기본 전망과 함께 낙관적 시나리오와 비관적 시나리오 전개에 따른 성장 전망도 함께 제시
- IMF는 세계 경제 5.2% 기본 전망 외에 비관 시나리오 전개시 2.3%, 낙관 시나리오 전개시 5.6% 성장 제시
- OECD도 5.0% 기본 전망 외에 비관 시나리오 전개시 전년 대비 2~3% 하락, 낙관 시나리오 전개시 7%까지 성장 전망

주요 전망기관 코로나19 시나리오별 2021년 경제 전망

단위: 억 달러, %

	기본 시나리오	낙관 시나리오	비관 시나리오
전개 상황	코로나19 확산이 2021년 중반 이후 점차 진정	코로나19 확산이 2021년 초반 이후 점차 진정	코로나19 재확산 심화로 2021년말 이후에나 점차 진정
IMF	5.2%	5.6%	2.3%
OECD	5%	7%	2~3%

주: IMF(10월), OECD(9월) 전망 기준



라. 국제금융시장

□ 국제 금리

-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에 대응하기 위해 낮은 수준의 정책 금리가 유지될 전망
 - 2020년 두 차례 정책금리 인하를 단행한 미 연준은 최근 평균물가목표제를 채택하는 등, 고용 안정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유로존도 물가상승률 목표치 하회 지속과 경기 하강 우려로 자산매입 프로그램 등 완화적 통화정책 수단을 도입하였으나, 향후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 및 더딘 경기 회복세 등으로 추가 완화 가능성
- 장기금리는 코로나19 상황 개선에 따른 경제 정상화 기대 등에 의해 전반적으로 반등할 전망
 - 미 국채 수익률(10년물)은 2020년 중 저점을 기록한 이후, 재정 지출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 및 경제 회복 기대감 등으로 2021년 말 1% 초반대로 상승할 전망
 - 한편, 유동성 증대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으로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영향 받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존재

주요 국제금리 전망

단위: %

구 분	2020년 평균	2021년 1/4	2021년 2/4	2021년 3/4	2021년 4/4	비 고
미 국	0.90	0.87	0.98	1.05	1.14	T/B(10년물)
일 본	0.00	0.00	0.02	0.02	0.03	JGB(10년물)
독 일	-0.44	-0.39	-0.33	-0.29	-0.25	Bund(10년물)

자료: Bloomberg, 국제투자은행전망 평균('20.10.27일자 기준, 2020년 평균은 3분기까지의 평균값)



□ 환 율

- 미 달러화는 확장적 통화·재정 정책 및 대외 수지 불균형 등으로 당분간 약세 기조 전망
- 중기적 약세 전망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확산 및 글로벌 경기 침체 지속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 강화 시 강세 전환 가능성 존재
- 유로화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강세를 보이겠지만, 유로존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ECB의 적극적 통화정책 등으로 강세 일부 제한 가능
- 일본 엔화는 스가 총리 선출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 등 약세 요인과, 안전자산 위상 및 견조한 日 경상수지 흑자 기조 등 강세 요인이 상충되며 제한적인 변동폭을 보일 전망
- 중국 위안화는 미중 무역갈등 및 홍콩 분쟁 등 약세 요인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빠른 경기 회복 및 중국 정부의 외자유치 노력 등으로 강세 요인 우세 예상

주요 국제환율 전망

구 분	2020년 평균	2021년 1/4	2021년 2/4	2021년 3/4	2021년 4/4
엔/달러환율	107.5	105	105	105	105
달러/유로환율	1.12	1.19	1.20	1.21	1.22
위안/달러환율	6.99	6.80	6.79	6.78	6.79

자료: Bloomberg, 국제투자은행전망 평균(20.10.27일자 기준, 2020년 평균은 3분기까지의 평균값)



□ 2020년 4분기 유가는 수요회복 불확실성으로 배럴당 40달러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혼조세 지속, 2021년 유가는 원유수요 회복 등으로 점차 유가가 상승하겠으나 OPEC+ 감산폭 완화 등으로 큰 폭의 상승은 제한될 전망

- 2020년 1~10월 국제유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유수요 급감 등으로 전년 대비 약 35% 하락한 배럴당 41.3달러
 - 2019년 12월 중순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되고, 3월 11일 WHO가 코로나 팬데믹을 선포하는 등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증폭으로 유가 폭락세가 이어지며 3월 중순 이후 배럴당 20달러대로 폭락
 - 4.12일 970만 b/d 상당의 역대급 OPEC+ 감산합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위축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장 우려, 글로벌 원유 저장시설 부족 등으로 유가는 전례 없는 폭락세가 지속되며 배럴당 20달러선도 붕괴
 - 5월물 WTI 유가는 만기를 하루 앞둔 20일 전일대비 배럴당 55.9달러 폭락한 -37.63달러로 마감하며, 1983년 WTI 선물 거래 개시 이후 사상 최초의 마이너스 유가 기록
 - 6월 배럴당 40달러대 회복 이후 7~8월은 40달러 초중반 가격대에서 박스권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8월말 5개월래 최고치(두바이유, 8.31일 \$45.93/bbl) 기록, 이후 9월 들어 하락하며 2개월 반만에 40달러선 붕괴
 - 7~8월 이후 각국의 산업·경제활동 재개에 따라 원유수요 회복세를 보이며 8월말 배럴당 40달러 중반대를 기록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OPEC+ 감산폭 축소, 허리케인 영향 등으로 10월말까지 배럴당 40달러대 초반대에서 등락 거듭
- 2차 글로벌 섯다운이 없다는 가정 하에 각국 경기 부양정책으로 수요 회복세 전개가 예상되나, 코로나 재확산세 등 수요 불확실성 지속, OPEC+감산폭 축소 예상 등으로 공급 여력은 충분할 전망
 - IEA, EIA, OPEC 등은 9월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수요회복 불확실성으로 2020년 원유수요 전망치를 전월대비 하향 조정
 - 공급측면에서 OPEC+ 감산폭 축소 예상, 리비아 원유 생산활동 재개 등으로 경제·산업활동 재개에 따른 수요 증가분 상쇄 여력은 충분
- 2021년 유가는 달러화 약세, 수요회복 등으로 2020년 2분기 저점 대비 유가상승하여 2021년 평균 유가는 금년 대비 소폭 상승한 배럴당 40달러 중반대 전망



- 모건 스탠리는 코로나19 이전의 수요 회복은 2021년 말에서 2022년 중반으로 지연되고, 2021년까지 공급과잉 및 예년 대비 높은 수준의 원유재고 유지할 것으로 예상. 유가는 유동성 확대,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 등으로 2021년 하반기까지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9.9일)
-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석유시장이 2분기 저점 이후 2021년 6월까지 회복세 지속 예상. 이에 유가는 2021년 배럴당 40~45달러 수준으로 전망(9.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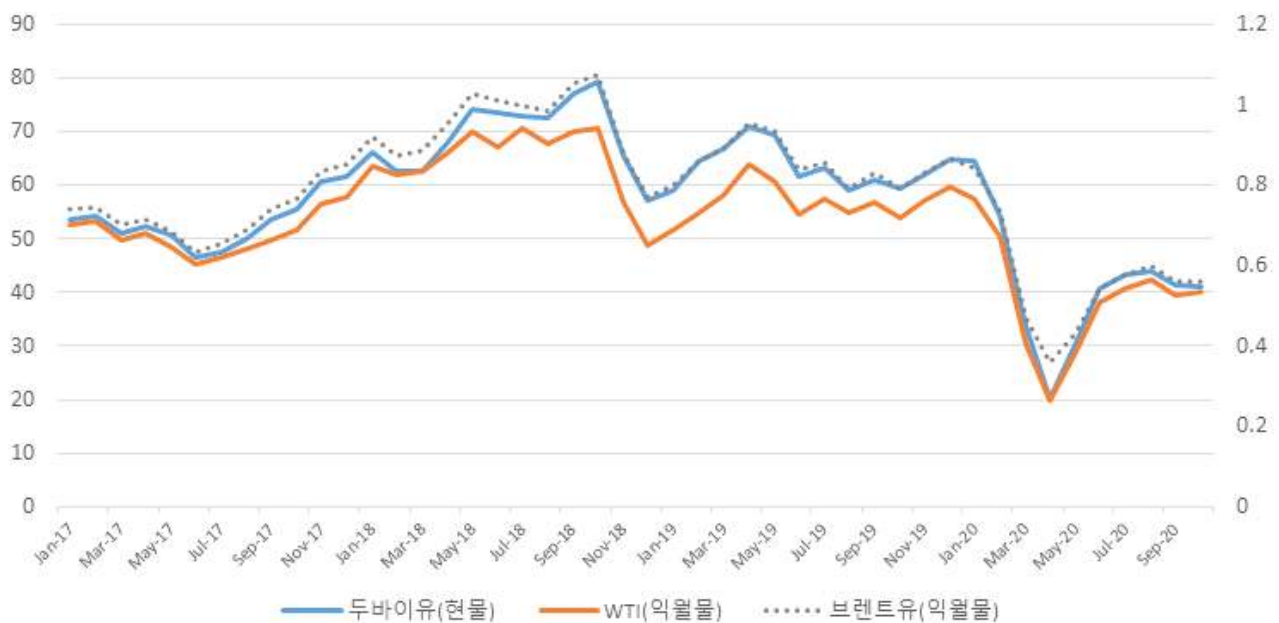
국제유가 전망

단위: \$/bbl

기준 유종	2019	2020 ^e					2021 ^f				
	평균	1/4	2/4	3/4	4/4 ^f	평균 ^e	1/4	2/4	3/4	4/4	평균
WTI	56.99	45.34	27.96	40.89	40.84	38.76	42.22	45.03	45.50	46.00	44.72
Brent	64.34	49.97	29.52	42.98	42.34	41.19	44.07	47.02	48.00	49.00	47.07

자료: EIA(STEO, 2020.10월)

2017년 이후 국제유가 추이



자료: Koreapds, 주간 평균가격



2. 국내경제전망

가. 경제 성장

□ 2021년 국내경제는 민간소비 회복·수출 개선 등에 힘입어 3% 내외 성장 전망

- 코로나19로 2020년 크게 하락한 민간소비가 개선되고, 수출도 점진적으로 회복되며, 지연된 설비투자도 재개되는 등 경제활동 정상화 영향으로 2021년 국내 경제는 3% 내외 성장
- (민간소비)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 대면 서비스업 중심 영업 제한 등으로 2020년 민간소비는 크게 감소했으나, 2021년에는 소비활동과 소비심리의 완만한 개선, 전년 기저효과 영향으로 3%대 성장 전망
- (설비투자) IT 부문의 반도체 중심 투자 개선세 지속, 비 IT 부문의 지연된 설비 교체 및 신규 투자 재개, 정부 뉴딜 투자 등의 영향으로 4~5%대 성장 전망

실질 GDP성장률 현황 및 전망

단위: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망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한은	LGERI	IMF
국 내 총 생 산(GDP)	2.0	△0.7	△1.4	△1.1	3.0	2.5	2.9
민 간 소 비 지 출	1.7	△4.4	△4.1	△4.3	3.1	2.2	-
설 비 투 자	△7.5	5.6	5.7	5.7	4.3	3.4	-
실 업 률	3.8	4.3	3.7	4.0	3.8	4.0	4.1
소 비 자 물 가	0.4	0.6	0.5	0.5	1.0	1.0	0.9

주: 2020~2021년 수치는 한국은행(11월) 전망, IMF는 10월 전망 기준

□ 고용과 물가

- 2020년 코로나19 충격으로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 여건이 악화됐으나, 2021년에는 수출 회복 및 대면 서비스 회복 등에 힘입어 취업자수 13만명 내외 증가, 실업률은 3%대 후반 전망
- 소비자물가는 2020년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 서비스 물가 상승세 둔화 등으로 0.5% 상승에 그쳤으나, 2021년에는 국제유가 하락 영향이 줄어들고 경기도 점차 개선됨에 따라 1%대 상승 전망



나. 수출

□ 2021년 수출은 전년 대비 9~10% 증가 전망

- 2020년 하반기부터 개선되기 시작한 수출은 주요국 경제 활동 재개로 교역량이 확대됨에 따라 2021년에는 전년 대비 9~10% 증가 전망
- 2020년 수출은 유가 하락 및 코로나19로 인한 각국 봉쇄 조치 등으로 교역이 위축되며 2분기 20% 이상 하락했으나 3분기 이후 개선됨에 따라 전년 대비 6~7% 하락
- 품목별로는 2021년 경기 개선 영향으로 반도체·일반기계는 증가세, 조선은 2018년 수주 영향으로 개선, 2020년 부진했던 자동차는 전년 기저효과 영향으로 상승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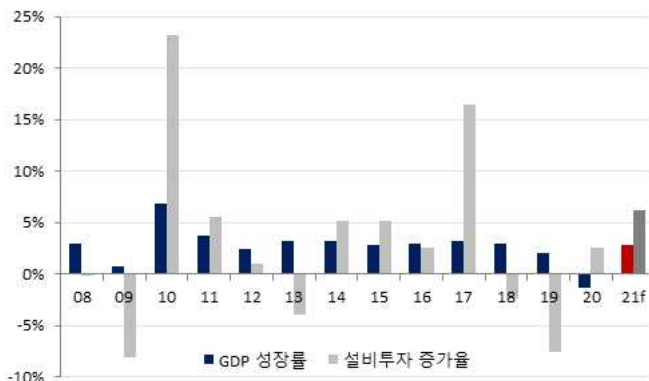
대외거래 전망

단위: 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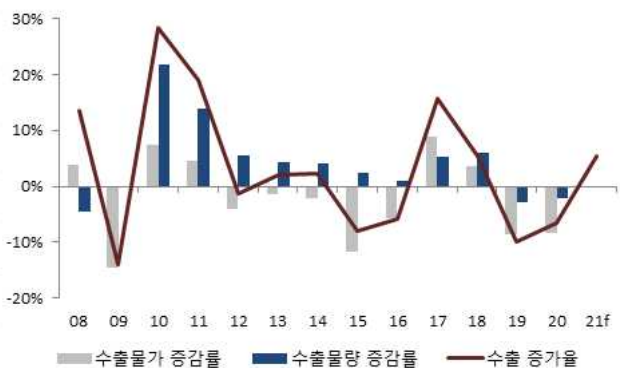
구 분	2020		2021	
	한국은행	LGERI	한국은행	LGERI
경 상 수 지	650	498	600	570
수 출	5,070 (△6.5)	5,005 (△7.7)	5,500 (8.5)	5,271 (5.3)
수 입	4,640 (△7.8)	4,756 (△5.5)	5,080 (9.5)	4,908 (3.2)

주: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수출·수입은 통관기준
자료: 한국은행(11월), LG경제연구원(8월) 전망 기준

경제 성장률 및 설비투자 증가율



수출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관세청



다. 국내 금융시장

□ 금 리

- 2021년 국내 금리는 미국, 유로존 등 주요국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외 실물경제의 완만한 회복 및 재정정책과 관련된 수급 우려 등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1.15%를 나타낼 전망
-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일부 자산 시장으로의 유동성 쏠림, 금융·실물 간 괴리, 가계부채 증가 등의 금융안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약한 경기 회복세 및 연준 제로금리 장기화 등으로 동결 전망

2021년 금리 전망

단위: %

구 분	2020년 평균	2021년 1/4	2021년 2/4	2021년 3/4	2021년 4/4
국고채권(3년물)	1.00	0.89	0.93	0.99	1.15

자료: 금융투자협회 및 Bloomberg, 국제투자은행전망 평균('20. 10. 27자 기준, 2020년 평균은 3분기까지의 평균값)

□ 환 율

- 2021년 중 원/달러 환율은 코로나19 상황 개선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및 미 달러 유동성 공급 지속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갈 전망
- 위안화는 최근 양호한 중국 경기 회복세 및 대내외 금리차 확대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입 등으로 달러대비 강세를 보이는 등, 향후에도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 가능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 및 미·중 무역갈등 지속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영향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 발생 시 달러 약세 제한 소지

2021년 환율 전망

단위: 원/달러

구 분	2020년 평균	2021년 1/4	2021년 2/4	2021년 3/4	2021년 4/4
원/달러	1,200	1,160	1,151	1,153	1,140

자료: Bloomberg, 국제투자은행전망 평균('20. 10. 27자 기준, 2020년 평균은 3분기까지의 평균값)



II. 주요산업별 수출전망

1. 주요 수주산업

가. 해외건설·인프라

(1) 해외건설

□ 2020년 해외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34.5% 증가한 300억 달러 예상

- 2020년 9월까지 해외건설 수주실적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187억 달러
- 11월까지 멕시코 정유 프로젝트 및 이라크 정유공장 등 대규모 수주로 인해 282억 달러에 달해 올해 300억 달러 수주가 가능해진 상황
- 코로나19 상황 등 급변하는 수주환경에서도 우리기업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 올해 해외건설 수주는 선방

□ 2021년 해외건설 수주는 전년과 유사한 280억 달러 전망

- 중동지역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어도 저유가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2021년 중동 수주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아시아 수주환경도 큰 폭의 상황 반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2020년 하반기 수주 선전에도 불구하고 2021년 해외건설 수주환경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80~300억 달러 수준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전망

해외건설 수주 추이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9월 ^p	전망	전망
수주액	282 (△38.8)	290 (2.8)	321 (10.7)	223 (△30.5)	187 (7.5)	300 (34.5)	280 (△6.7)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해외건설 수주액은 토목, 건축, 플랜트, O&M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 해외건설 수주액은 인프라 수주액을 포함한 수치

자료: 해외건설협회, 2020년 및 2021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2) 인프라

□ 2020년 인프라 수주는 전년 대비 16% 증가한 80억 달러 예상

- 2020년 9월까지 도로·항만·철도·댐 등 토목분야 수주액은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인 33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발전 설비의 경우 전년 대비 182% 증가한 28.2억 달러를 기록

□ 2021년 인프라 수주는 전년 대비 12.5% 증가한 90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 코로나19 상황이 2021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주 및 기업들의 영업 활동이 정상화돼 인프라 수주는 전년 대비 증가할 전망
- 하지만 2021년 인프라 수주는 여전히 100억 달러를 밑돌 것으로 예상
- 향후 인프라 발주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 및 전기자동차 등 그린 인프라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관련 기술 및 Track record 확보 등 새로운 수주전략 수립을 통한 대응이 중요
- 또한 인프라 수주 확대를 위해선 시공 위주의 사업형태에서 PPP 사업 등 개발 및 운영사업 중심의 수주 전략 전환이 필요

인프라 수주 추이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망
					1~9월 ^P	전망	
수주액	123 (△24)	127 (3.5)	102 (△19.7)	68.9 (△32.5)	67 (44)	80 (15.9)	90 (12.5)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인프라 수주액은 도로·교통·항만·공항 등 토목분야와 발전, 담수, 전기시설로 구성

자료: 해외건설협회, 2020년 및 2021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나. 조선해양

(1) 선박(부분품 포함)

□ 2020년 수주량은 큰 폭의 감소

- 2020년 선박수주량(해양플랜트 제외)은 전년 대비 57.5% 감소한 420만CGT 예상
- IMO SO_x 규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으로 연료비용이 오히려 낮아지며 노후선 교체 수요가 지연되고 코로나19로 인한 투자경색 분위기까지 더해지며 발주 감소
- 9월 누적 선박 수주량은 전년동기 대비 59.3% 감소한 242만CGT로 크게 부진하나 연말까지 모잠비크 등 LNG프로젝트의 발주로 LNG 운반선의 대량 수주가 기대되어 420만CGT 도달 예상
- 2020년 수주액은 전년 대비 52.4% 감소한 110억 달러 예상
- 9월 누적 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58.1% 감소한 55억 달러
- 2020년 수출액(해양플랜트 포함)은 전년 대비 2.0% 감소한 197.4억 달러 예상
- 9월 누적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0.4% 감소한 144.9억 달러
- 연초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블록공장의 제작 차질이 이루어지며 생산 지연이 수출감소로 이어진 것이 감소 원인으로 추정됨

□ 2021년 총 선박수주량은 크게 증가 수출액은 소폭 증가

- 2021년 선박발주는 코로나19 사태로 지연된 잠재 수요와 2022년 EU의 선박 ETS 규제 등에 대비하기 위한 수요들이 발주되며 큰 폭의 증가 전망
- 이에 따라 한국의 수주량과 수주액은 각각 134%와 110% 증가한 9.8백만CGT와 215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2021년도 수출은 LNG 운반선 수출 증가 등으로 약 4% 증가한 205억 달러 수준 전망



선박 수주 및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백만CGT, 억 달러,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망
					1~9월	전망	
수주량	2.2 (△79.3)	7.8 (246.7)	13.4 (72.4)	9.9 (△26.2)	2.4 (△59.3)	4.2 (△57.5)	9.8 (133.6)
수주액	44.2 (△81.1)	146.4 (231.1)	270.6 (84.9)	221.5 (△18.1)	54.7 (△58.1)	102.5 (△53.7)	215 (109.8)
수출액	342.7 (△14.7)	421.8 (23.1)	212.8 (△49.6)	201.6 (△5.2)	144.9 (△10.4)	197.4 (△2.1)	205 (4.0)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수출액은 9월 기준이며 해양플랜트 포함

자료: Clarkson, 산업통상자원부, 2020~2021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2) 해양플랜트

□ 2020년 해양플랜트 수주는 LNG/FSU 2기 수주에 그침

- 2020년 해양플랜트 수주는 러시아 노바텍이 발주한 LNG 해상저장 장치인 LNG/FSU 2기로 총 7.5억 달러 규모임
- 해양플랜트 시장은 유가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단기적 인상도 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침체에 빠져 있음

□ 2021년 해양플랜트 수주 역시 10억 달러 내외의 소량 수주 기대

- LNG 관련 설비 등에 대한 소량 수주가 기대되어, 약 10억 달러 내외 수주가 가능할 전망

해양플랜트 수주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망
					1~9월	전망	
수주액	-	28.0	4.5 (△83.9)	9.7 (115.6)	7.5 (△22.6)	7.5 (△22.6)	10 (33.0)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2020~2021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Drill-ship, FPSO 및 기타 부유식 플랜트만을 집계



(3) 해운

□ 2020년 해운 업황은 수요부진 속에 선종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임

- 2019년 말 미중 무역분쟁의 완화로 전반적인 수요개선이 기대되었으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크게 위축됨
- 공통된 수요 위축에도 벌크선, 탱커, 컨테이너선 등 3개 시장이 각각 다른 양상이 나타나며 2020년 시장은 매우 혼란스러운 모습임
- 탱커는 2분기 중 급등의 영향으로 용선료가 전년동기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나 5월 이후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3월 유가 급락으로 저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수입량 폭증으로 4월 초 310K급 VLCC 용선료가 연초 대비 64.1% 상승한 1일당 80,000달러까지 급등한 후 5월부터 하락하여 10월 말 현재 25,000달러까지를 기록하였으며 하락 추세 지속 중
 - 빠른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2분기 중 급등의 영향으로 10월까지 310K급 VLCC 용선료는 전년동기 대비 26.6% 상승한 1일당 평균 44,012달러
- 벌크선은 연초 발생한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1, 2분기 중 크게 부진하였으나 3분기 들어 중국 경기부양책에 의한 철광석 수요 등으로 회복추세를 보임
 - 벌크선 운임지수인 BDI는 1, 2분기 부진의 영향으로 10월까지 평균치가 전년동기 대비 23.1% 하락한 1,034를 기록함
- 컨테이너선은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운임은 높은 수준을 유지
 - 연초 코로나19 사태로 해운수요가 축소되자 각 해운동맹은 노선 감편을 통한 투입 선박량 감축을 통하여 1,2분기 운임하락을 방어하며 오히려 전년동기 대비 1분기 7.9%, 2분기 6.2% 각각 높은 CCFI가 기록됨
 - 3분기 들어 미국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해운 물동량이 폭증하며 운임이 크게 상승하여 3분기 CCFI는 전년 동기대비 10.8% 상승한 910을 기록
 - 중국발 컨테이너선 운임지수 CCFI의 10월까지 평균치는 905로, 전년동기 대비 10.1% 높은 수준



□ 2021년 해운 시황은 탱커를 제외하고 대체로 개선 전망

- 2021년 해운 수요는 세계 경기 회복 움직임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전년 대비 운임과 용선료 등은 대체로 상승할 전망
- 탱커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각국의 저가물량 수입 증가로 재고가 많은 상황이고, 산유국의 감산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요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움
- 310K급 유조선 용선료는 전년 대비 약 19% 하락한 1일당 32,000달러 내외 전망
- 벌크선은 BDI는 전년 대비 약 21% 상승한 연평균 1,300 내외 전망
- 컨테이너선 CCFI는 약 5% 상승한 연평균 960 수준 전망

해운 평균 운임지수 현황 및 전망

단위: 용선료는 \$/day, 지수,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망
					1~10월 ^P	전 망	
탱커용선료	36,585 (△24.5)	27,084 (△26.0)	22,899 (△15.5)	36,358 (58.8)	43,012 (26.6)	39,700 (9.2)	32,000 (△19.4)
BDI	673 (△6.3)	1,145 (70.1)	1,353 (18.1)	1,353 (0.0)	1,034 (△23.1)	1,075 (△20.5)	1,300 (20.9)
CCFI	712 (△18.4)	820 (15.2)	818 (△0.2)	824 (0.7)	905 (10.1)	915 (11.0)	960 (4.9)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탱커 용선료는 310K급 VLCC 기준

자료: Baltic 해운거래소, Clarkson, 상해항운교역소, 2020~2021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2. 주력 수출산업

가. 반도체

□ 2020년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969억 달러 전망

- 2020년 1~9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3% 증가한 733억 달러
-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바일용 수요는 감소했으나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서버, PC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2.2% 감소한 473억 달러 기록
-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파운드리 수주 호조 등으로 12.8% 증가한 215억 달러 기록
- 10~12월 반도체 수출은 미국의 화웨이 추가 제재로 인한 반도체 재고축적 수요는 소멸되나 화웨이 공백을 메우려는 중국 스마트폰 수요 등으로 양호 예상
- 미국은 전세계 기업이 미국 기술을 활용해 생산한 반도체를 화웨이에 판매시 미국의 승인을 요구하는 규제안을 9/15부터 발효, 화웨이는 제재 발효전 반도체 선구매
- * 반도체 수출 증감률(전년동기 대비): ('20.1분기) 0.6% → (2분기) △3.4% → (3분기) 6.7%

□ 2021년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1,017억 달러로 전망

- 반도체 수출은 글로벌 경기 회복, 서버·모바일용 반도체 수요 증가,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 D램 가격 하반기 반등 등으로 증가 전망
- * D램 가격 전망(DDR4 8Gb 기준, 달러): ('21.1~2분기)2.69→(3분기)3.00→(4분기)3.31 (Trendforce)
- 코로나19, 미국 대선 결과('20.11)에 따른 중국과 갈등 양상 변화 등은 반도체 수출에 변수로 작용
- 미국은 화웨이 등을 블랙리스트에 추가, 중국은 미국기업 블랙리스트 작성 추진¹⁾
- 바이든 후보 당선시에도 미중갈등은 지속되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고율관세 부과 등 강경대응보다 협상 등을 통해 갈등 해소 추진 예상

반도체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망
					1~9월 ^P	전 망	
수출액	622 (△1.1)	997 (60.2)	1,281 (28.6)	952 (△25.7)	733 (1.3)	969 (1.8)	1,017 (5.1)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0~2021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1) 중국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기업을 제재하는 수출관리법을 '20년 12월부터 시행 계획, 애플 등 포함 가능성



나. 디스플레이

□ 2020년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2.0% 감소한 192억 달러 전망

- 2020년 1~9월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4.4% 감소한 140억 달러
- LCD 수출은 중국의 생산능력 확대, 한국기업의 LCD 구조조정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9.1% 감소한 44.5억 달러, OLED 수출은 6.6% 감소한 68.3억 달러 기록
- 10~12월 디스플레이 수출은 LCD 가격 상승 지속, 스마트폰용 OLED 수요 증가 등으로 연간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12% 감소 예상
- 코로나19로 인한 재택 체류시간 증가 등으로 TV 교체 수요 증가, 아이폰 신모델(아이폰12)이 처음으로 OLED 패널만을 탑재하여 4분기 디스플레이 수출 환경은 양호
- * 아이폰11은 3개 모델중 2개 모델이 OLED 탑재, 아이폰12의 OLED 패널은 한국기업이 공급

□ 2021년 디스플레이 수출은 전년수준인 192억 달러 내외로 전망

- 2021년 디스플레이 수요는 글로벌 경기 회복, 주요 스포츠 이벤트, 경기부양책 등으로 TV,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증가 예상
- 2021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 유로2020 등의 개최로 TV 수요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나 PC 수요는 2021년 상반기까지 양호할 것으로 예상
- 수출 환경은 우호적이나 수출증감률은 한국 디스플레이기업의 LCD 사업 철수 시기 등에 영향을 받을 전망
- 한국기업은 중국발 가격전쟁으로 LCD 패권이 중국으로 이동하자 '20년말 LCD 철수 계획을 발표했으나 코로나19로 TV 수요 증가, LCD 가격상승으로 사업연장 검토
- * 한국기업은 최대 1년간 LCD 사업 연장 검토중

디스플레이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망
					1~9월 ^P	전 망	
수출액	274 (△15.6)	303 (7.8)	278 (△8.4)	218 (△21.3)	140 (△14.4)	192 (△12.0)	192 (0.0)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0~2021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 2020년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16.4% 감소한 360억 달러, 부품은 전년 대비 20.1% 감소한 180억 달러

-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발생으로 미국 및 유럽 등 주요 지역 경제가 봉쇄되면서 상반기 자동차 수출이 급감
- 9월 이후 자동차 수출이 전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으나, 상반기 부진으로 인해 2020년 자동차 수출은 큰 폭 감소가 불가피
- 자동차 부품 수출 역시 부진한 상황이며, 2020년 자동차부품 수출은 200억 달러를 하회할 전망

□ 2021년 자동차 및 부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610억 달러 예상

- 코로나19 상황 개선, 신차효과 및 수출단가가 높은 전기자동차 판매량 증가로 2021년 자동차 수출은 400억 달러 회복이 가능할 전망
- 전기자동차 수출액은 2020년 40억 달러에서 2021년 70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동차 수출액 증가에 전기자동차가 크게 기여할 전망
- ※ 2020년 내연기관 자동차 평균 수출단가 1.95만 달러, 전기자동차 3만 달러
- 자동차부품 수출은 기저효과 및 북미지역 자동차 수출 증가로 인해 200억 달러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전히 2019년 대비 11% 낮은 수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 추이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 망
자동차 수출액	401.5 (△11.3)	416.9 (4.0)	408.9 (△1.9)	430.7 (5.3)	360 (△16.4)	410 (13.9)
자동차부품 수출액	255.6 (△4.6)	231.3 (△9.5)	231.2 (△0.1)	225.4 (△2.5)	180 (△20.1)	200 (11.1)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2020~2021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라. 일반기계

□ 2020년 일반기계 수출은 전년 대비 9.6% 감소한 475억 달러 예상

- 2020년 9월까지 일반기계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0.1% 감소한 350.6억 달러
-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각국의 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일반기계 수출 감소의 원인
- 기종별로 살펴보면 공조기 및 냉난방기의 전년동기 대비 23.0% 감소 등으로 기초산업기계 수출이 5.0% 감소하였고, 건설기계(-16.1%), 공작기계(-9.5%) 등의 부진으로 산업기계 수출 역시 13.5% 감소
- 기계요소, 공구 및 금형 역시 전년동기 대비 9.6% 감소하였고 기타기계류도 16.1% 감소함

□ 2021년도 일반기계 수출은 전년 대비 10.0% 증가한 523억 달러 전망

- 2020년도 수출부진에 대한 기저효과 및 중국 등 각국 경기부양책에 의한 수요 등으로 비교적 큰 폭의 수출 증가 예상

일반기계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 망
					1~9월 ^P	전 망	
수출액	441.6 (△1.8)	486.1 (10.1)	535.6 (10.2)	525.6 (△1.9)	350.6 (△10.1)	475 (△9.6)	523 (10.0)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일반기계는 MTI 71(기초산업기계), 72(산업기계), 75(기계요소공구 및 금형), 79(기타기계류)의 합

자료: 무역협회, 2020~2021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마. 석유제품

□ 2020년 석유제품 수출은 전년 대비 약 39% 감소한 약 250억 달러 예상

- 2020년 1~9월 석유제품 수출액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간 봉쇄, 이동제한 조치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운송용 석유제품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전년 대비 38% 하락한 190억 달러로 추정(산업통상자원부)
- 3분기 들어 석유제품 월 수출액이 각국의 경제·산업 활동 재개 영향으로 2분기 대비 상승·회복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년동월 대비 40% 이상 낮은 수치 기록
- 2020년은 유가 급락 및 석유제품 수요 급감의 영향으로 수출액이 전년 대비 약 39% 감소할 것으로 예상

□ 2021년 석유제품 수출은 2020년 대비 약 4% 증가한 260억 달러 전망

- 2021년 유가가 올해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석유제품 수출액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전망
- 다만 중국의 정제설비 생산능력 확대 등 석유제품의 글로벌 공급과잉 기조와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따른 석유제품 수요 부진 지속 등으로 큰 폭의 상승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

석유제품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망
					1~9월 ^P	전망	
수출액	265 (△17.3)	350 (32.4)	464 (32.3)	464 (32.3)	190 (△38.1)	250 (△38.6)	260 (4.0)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0~2021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바. 석유화학

□ 2020년 석유화학 수출은 전년 대비 약 18% 감소한 347억 달러 예상

- 2020년 1~9월 석유화학 수출액은 동기간 유가가 전년 대비 30% 이상 급락하며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동반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언택트 시대의 포장재, 가전 소재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18.9% 하락한 262억 달러로 추정 (산업통상자원부)
- 포장재, 가전 소재 부문의 수요 증가로 관련 석유화학 제품의 스프레드(제품가격-원료가격) 확대

* 국제유가(\$/B, %) : ('19.9) 61.13 → ('20.9) 41.51(△32.1)

** 석유화학 수출단가(\$/톤, %) : ('19.9) 1,074 → ('20.9^P) 940(△12.5)

□ 2021년 석유화학 수출은 2020년 대비 약 7% 증가한 370억 달러 전망

- 금년 대비 2021년 유가의 상승전망에 따른 석유화학제품 가격 동반상승과 ECC 설비 대비 NCC 설비의 경쟁력 개선 등으로 국내 석유화학 수출액이 금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다만 코로나19 확산 지속에 따른 수요회복 불확실성과 글로벌 석유화학 설비 신증설에 따른 공급과잉 우려가 수출액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석유화학제품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망
					1~9월 ^P	전망	
수출액	362 (△4.3)	447 (23.6)	500 (11.8)	426 (△14.8)	262 (△18.9)	347 (△18.4)	370 (6.6)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산업부, 2020~2021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사. 철강

□ 2020년 철강 수출액은 전년 대비 16.1% 감소한 260억 달러 예상

- 2020년 철강 수출은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전방산업 철강 수요 위축으로 큰 폭 하락이 불가피
- 하락 추세이던 철강재 가격이 6월을 바닥으로 상승 전환되는 등 철강재 수요가 서서히 반등 중
- 하반기 수출 감소 폭은 줄어드나, 상반기 큰 폭의 수출 감소로 인해 2020년 철강 수출액은 260억 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

□ 2021년 철강 수출액은 전년 대비 7.7% 증가한 280억 달러 전망

- 유가 등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제품가격이 상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강 수출액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전망
- 코로나19 인해 급감했던 전방산업 수요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아시아 인프라 건설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철강 수출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2019년 수준의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미·중 무역전쟁 및 보호무역 확대 추세는 철강수출에 변수로 작용

철강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망
					1~9월 ^p	전망	
수출액	285.4 (△5.6)	342.1 (20)	339.7 (△0.7)	310.4 (△8.6)	195.9 (△16.9)	260 (△16.1)	280 (7.7)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산업부, 2020~2021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3. 혁신성장산업

가. 서비스

(1) 콘텐츠

□ 2020년 콘텐츠 수출은 전년 대비 8% 증가한 104억 달러 전망

- 코로나19로 재택 체류 시간이 증가하면서 콘텐츠 수요와 수출이 증가할 전망
- 장르별 수출비중('19)은 게임 67.2%, 캐릭터 7.9%, 지식정보 6.4%, 음악 6.2%, 방송 5.2% 순으로 5개 장르가 콘텐츠 수출의 92.8% 창출
- 전년 대비 수출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만화(13.6%), 음악(13.4%), 캐릭터(10.7%), 게임(8.9%) 순이며, 수출이 감소한 분야는 출판(△13.8%)과 영화(△9.0%)
- 신규 게임의 중국 수출은 어렵지만 게임의 수출 지역 다변화, 웹툰의 성장²⁾, 해외 OTT(넷플릭스 등)의 콘텐츠 구매 증가 등으로 콘텐츠 수출 증가 전망
- 2017년 사드 배치로 중국의 한류금지령이 시작된 이후 국내 기업의 신규 게임은 중국에서 신규 판호(영업허가권)를 받지 못하고 있음
- 한국 드라마가 아시아 주요국 넷플릭스 Top 10에 랭크되고 있어 수출 증가 전망³⁾

□ 2021년 콘텐츠 수출은 전년 대비 7.0% 증가한 120억 달러 전망

- 아시아를 중심으로 게임, 캐릭터, 음악, 방송 등의 수출 호조 지속 전망
- 한중관계 개선 노력으로 중국의 한류금지령 해제 기대

콘텐츠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망	2021년 전망
수출액	88.1 (46.7)	96.2 (9.1)	103.9 (8.1)	112.2 (8.0)	120.1 (7.0)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체계'에서 정의된 출판, 만화, 음악(공연 포함),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광고, 방송,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 솔루션을 포함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년 및 2021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2) '20년 2분기 기준, 네이버 웹툰의 글로벌 거래액중 해외비중은 27%, 해외 거래액은 전년동기 대비 57% 성장

3) 8월 6일 일본 넷플릭스 기준 Top 5에 한국 드라마가 랭크됨(1위 '사랑의 불시착', 2위 '사이코지만 괜찮아', 4위 '이태원 클라쓰').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8월 7일 기준, 아시아 7개국에서 시청률 1위를 차지



나. 에너지산업

(1) 태양광

□ 2020년 태양광 수출액은 전년 대비 18% 감소한 17억 달러 예상

- 글로벌 태양광 수요가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중국 폴리실리콘 자급을 증가로 인해 폴리실리콘 수출이 부진한 상황
-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미국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급과잉에 따른 태양전지 및 모듈 가격 하락으로 인해 수출액은 감소

□ 2021년 태양광 수출액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18억 달러 전망

- 2021년 글로벌 태양광시장은 150GW가 넘어서는 호황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요 증가도 태양광 제품가격도 안정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유럽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은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될 전망
- 태양광 수출의 한 축을 담당했던 폴리실리콘은 국내 제조 비용 증가에 따른 가격 경쟁력 상실로 인해 2021년 수출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

태양광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망
				1~9월 ^P	전망	
수출액	28.7	23.6 (△17.8)	20.7 (△12.3)	11.6 (△24.2)	17 (△18)	18 (6)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태양광 수출액은 폴리실리콘, 태양전지 및 모듈의 합

자료: 무역협회, 2020년 및 2021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2) 리튬이차전지

□ 2020년 리튬이차전지 수출액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48억 달러 예상

- 2020년 9월까지 리튬이차전지 수출액은 전년 대비 0.5% 증가한 35억 달러를 기록 중
- 최근 세계 각국의 친환경차 의무생산제도 도입 등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요 증대, 모바일 전자제품 시장 확대, 전동공구·무선청소기 등 고출력 제품 판매 확대 등으로 수요 증가
- 리튬 이차전지 수요는 증가하나 대량생산에 따른 생산단가 하락으로 인해 물량 대비 수출액 증가율이 낮은 상황

□ 2021년 리튬이차전지 수출액은 전년 대비 4.2% 증가한 50억 달러 전망

- 리튬이차전지 수출은 전기자동차 수요가 본격화되는 2020년 이후 폭발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유럽을 중심으로 전기자동차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여 관련 리튬이차전지 수요도 크게 증가할 전망
- 하지만 국내 생산물량의 수출보다는 수요가 있는 현지 생산이 증가하고 있어, 수출 증가율은 글로벌 수요 증가 대비 낮아질 전망

리튬이차전지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망
					1~9월 ^P	전망	
수출액	3.2 (14.2)	35.2 (51)	43.9 (24.7)	46.8 (6.7)	35 (0.5)	48 (2.7)	50 (4.2)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리튬이온배터리는 HS코드 850760 기준

자료: 무역협회, 2020년 및 2021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3) 수소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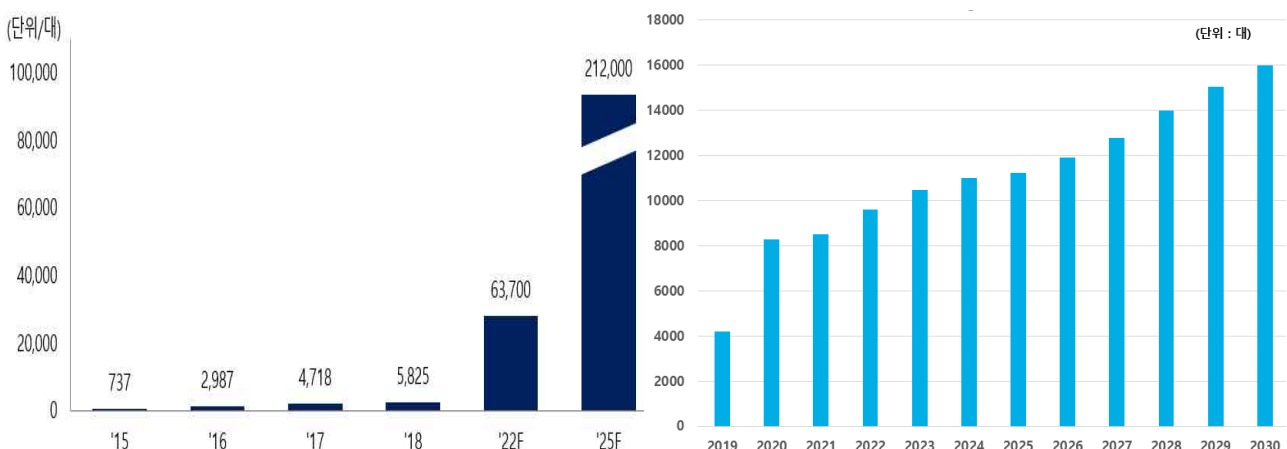
□ 2020년까지 테스트시장에 불과했던 수소자동차 시장은 2025년부터 20만대 규모의 초기시장을 형성할 전망

- 일반 전기차 대비 수소 전기차는 친환경성, 주행거리, 충전시간 등 다수 분야에서 뛰어나지만, 초기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
- 수소자동차 개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모델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2025년 이후 초기시장이 형성
- 유럽 국가들의 적극적인 보급정책 및 전기차 시장 리더인 중국의 시장참여로 인해 2030년 100만대 규모로 빠르게 성장할 전망

□ 2040년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밸류 체인 전반의 생태계 확보를 추진

- 2050년 수소는 최종 에너지 소비량의 18%를 차지하고 4억대의 승용차와 2,000만대의 상용차가 활용될 것으로 예상, 이는 전 세계 자동차의 약 20%에 해당
- 올해 현대자동차 수소차 판매량은 2,879대를 기록해 수소차 판매량 세계 1위를 기록했으며, 2021년 연간 2,000대 규모의 수소전기트럭 생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2030년 수소차 50만대 대량 양산체제 구축을 목표

글로벌 수소자동차 시장 및 국내 수소자동차 시장 전망



자료 : 산업부, BNEF



다. ICT 융합

(1) 산업용 로봇

□ 2020년 산업용 로봇 수출은 전년 대비 27% 감소한 1.5억 달러 예상

- 2020년 1~9월 산업용 로봇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6.7% 감소한 1.1억 달러
- 산업용 로봇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체코(23%), 중국(21%), 인도(12%), 미국(11%), 베트남(8%)으로 5개국이 총 수출의 75% 점유
- 산업용 로봇은 자동차, IT제품의 생산 자동화를 위한 제품 비중이 높으며,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건설, 중국·인도의 제조업 고도화 등이 수출을 견인했으나,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등으로 투자가 감소하면서 로봇 수출도 감소
- 2020년 4분기에도 코로나19 장기화,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산업용 로봇 수출 반등이 어려울 전망

□ 2021년 산업용 로봇 수출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1.7억 달러 전망

- 세계 경제성장률 반등, 코로나19로 대면 접촉 축소 노력 등으로 글로벌 로봇 산업은 2021년에는 회복세로 전환 예상
- 한국기업은 2017년부터 로봇 사업 투자를 확대하면서 신모델 개발, 선도기업과의 기술격차 축소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수출은 반등할 것으로 예상
- 주요 기업은 현대로보틱스(현대중공업), 로보스타(LG 계열), 두산로보틱스, 한화정밀기계 등

산업용 로봇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망
				1~9월 ^P	전 망	
수출액	2.0 (10.8)	1.7 (△12.6)	2.0 (17.5)	1.1 (△26.7)	1.5 (△27.0)	1.7 (16.0)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HS코드 847950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및 2021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2) 5G 통신장비

□ 2020년 이동통신 장비 수출은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9.8억 달러 전망

- 2020년 1~9월 이동통신 장비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8.2% 증가한 7.0억 달러
- 주요 수출대상국은 일본(23%), 미국(17%), 중국(홍콩 포함, 12%), 베트남(10%), 인도(9%) 순
- 전년동기 대비 수출증가율은 인도가 12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베트남 59%, 일본 34% 순, 미국과 중국(홍콩 포함)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13%, 18% 감소
- 한국은 이동통신장비 후발주자이나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 기술력 제고, 미국의 중국기업 통신장비 사용 배제 등으로 해외진출 기회가 증가할 전망
- 미국은 국방수권법 등을 통해 중국기업의 통신장비 사용금지, 동맹국에 화웨이 배제를 요청했으며 영국, 일본, 호주 등이 화웨이 배제를 결정
- 삼성전자가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과 체결한 무선통신 솔루션 공급계약은 66억 달러 규모이며 계약기간은 5.5년('20.6.30~'25.12.31)으로 중장기 부품 수출 견인 기대

□ 2021년 이동통신 장비 수출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12억 달러로 전망

- 글로벌 경기 회복, 5G 인프라 투자 확대, 미국의 중국기업 통신장비 사용 배제 등으로 이동통신 장비 수출 증가 기대
- 최초의 5G 아이폰(아이폰12)이 '20년 10월 출시되면서 미국 등의 5G 투자 확대 전망

이동통신장비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망
					1~9월 ^P	전 망	
수출액	17.9 (△1.9)	20.9 (16.5)	12.6 (△39.4)	9.1 (△28.2)	7.0 (8.2)	9.8 (10.0)	11.4 (16.0)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0~2021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라. 미래운송기기

(1) 미래차(전기자동차)

□ 2020년 전기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41억 달러 예상

- 2020년 9월까지 전기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78% 증가한 27.3억 달러를 기록 중
- 전기자동차 수출이 40개월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전기자동차 수출대수는 사상 처음 1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
- 수출 상위 3개국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지역이며, 9월까지 3개국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40%를 차지

□ 2021년 전기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70% 증가한 70억 달러 전망

- 글로벌 전기 자동차 수요가 초기 시장단계를 지나 본격적인 성장단계에 진입했으며, 2020년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될 경우 수요 증가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
- 전기자동차 최대 수출지역인 유럽 수요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1년 전기 자동차 수출은 전년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 국산 전기자동차는 디자인과 성능에 대해 해외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어, 당분간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

전기자동차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망
					1~9월 ^P	전망	
수출액	3.2 (△7.2)	4.2 (33.7)	10.9 (159.4)	23.5 (115.4)	27.3 (0.5)	41 (75)	70 (70)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전기자동차는 MTI 741400 기준

자료: 무역협회, 2020년 및 2021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마. 소비재

(1) 화장품

□ 2020년 화장품 수출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73.3억 달러 예상

- 2020년 1~9월 화장품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5.2% 증가한 54.5억 달러
- 최대 수출대상국인 중국은 코로나19 확진자수 감소, 경제활동 재개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23.0% 증가하며 화장품 수출을 견인
 - ※ 주요 수출 대상국은 중국(49.6%), 홍콩(9.5%), 일본(8.6%), 미국(8.4%), 베트남(3.3%) 순
- 목욕용 제품, 두발용 제품 수출이 코로나19 영향으로 각각 25.7%, 10.1% 증가했으며 메이크업·기초화장품 수출도 7.5% 증가
- 4분기 화장품 수출은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 '광군제(11.11, Single Day)' 등으로 인해 양호한 흐름 유지 예상

□ 2021년 화장품 수출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78.4억 달러 전망

- 글로벌 경기 반등, 지역다변화 노력 지속 등으로 수출증가세 유지 예상
- 중국 화장품 시장 경쟁심화, 프리미엄 제품 선호 등으로 한국기업의 브랜드 파워 및 기술력 제고, 디지털 마케팅 강화 등이 필요

화장품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망
					1~9월 ^P	전 망	
수출액	41.9 (43.1)	49.6 (18.3)	62.7 (26.5)	65.4 (4.3)	54.5 (15.1)	73.3 (12.0)	78.4 (7.0)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MTI 2273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및 2021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4. K-뉴딜 중점 산업

(1) 리튬이차전지

□ 2020년 리튬이차전지 수출액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48억 달러 예상

- 2020년 9월까지 리튬이차전지 수출액은 전년 대비 0.5% 증가한 35억 달러를 기록 중
- 최근 세계 각국의 친환경차 의무생산제도 도입 등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요 증대, 모바일 전자제품 시장 확대, 전동공구·무선청소기 등 고출력 제품 판매 확대 등으로 수요 증가
- 리튬 이차전지 수요는 증가하나 대량생산에 따른 생산단가 하락으로 인해 물량 대비 수출액 증가율이 낮은 상황

□ 2021년 리튬이차전지 수출액은 전년 대비 4.2% 증가한 50억 달러 전망

- 리튬이차전지 수출은 전기자동차 수요가 본격화되는 2020년 이후 폭발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유럽을 중심으로 전기자동차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여 관련 리튬이차전지 수요도 크게 증가할 전망
- 하지만 국내 생산물량의 수출보다는 수요가 있는 현지 생산이 증가하고 있어, 수출 증가율은 글로벌 수요 증가 대비 낮아질 전망

리튬이차전지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망
					1~9월 ^P	전망	
수출액	3.2 (14.2)	35.2 (51)	43.9 (24.7)	46.8 (6.7)	35 (0.5)	48 (2.7)	50 (4.2)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리튬이온배터리는 HS코드 850760 기준
자료: 무역협회, 2020년 및 2021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2) 태양광

□ 2020년 태양광 수출액은 전년 대비 18% 감소한 17억 달러 예상

- 글로벌 태양광 수요가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중국 폴리실리콘 자급률 증가로 인해 폴리실리콘 수출이 부진한 상황
-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미국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급과잉에 따른 태양전지 및 모듈 가격 하락으로 인해 수출액은 감소

□ 2021년 태양광 수출액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18억 달러 전망

- 2021년 글로벌 태양광시장은 150GW가 넘어서는 호황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요 증가도 태양광 제품가격도 안정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유럽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은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될 전망
- 태양광 수출의 한 축을 담당했던 폴리실리콘은 국내 제조 비용 증가에 따른 가격 경쟁력 상실로 인해 2021년 수출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

태양광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망
				1~9월 ^P	전망	
수출액	28.7	23.6 (△17.8)	20.7 (△12.3)	11.6 (△24.2)	17 (△18)	18 (6)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태양광 수출액은 폴리실리콘, 태양전지 및 모듈의 합

자료: 무역협회, 2020년 및 2021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3) 수소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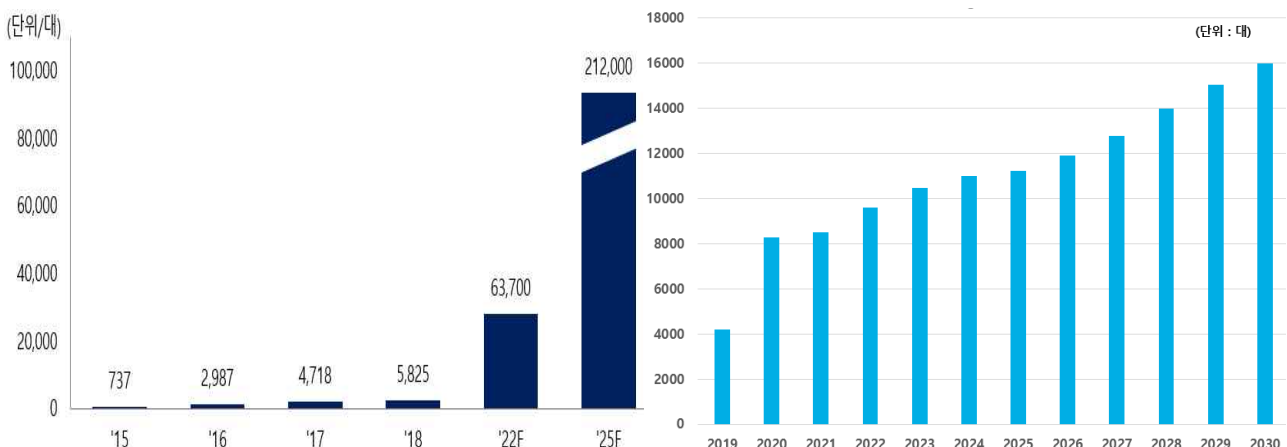
□ 2020년까지 테스트시장에 불과했던 수소자동차 시장은 2025년부터 20만대 규모의 초기시장을 형성할 전망

- 일반 전기차 대비 수소 전기차는 친환경성, 주행거리, 충전시간 등 다수 분야에서 뛰어나지만, 초기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
- 수소자동차 개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모델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2025년 이후 초기시장이 형성
- 유럽 국가들의 적극적인 보급정책 및 전기차 시장 리더인 중국의 시장참여로 인해 2030년 100만대 규모로 빠르게 성장할 전망

□ 2040년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밸류 체인 전반의 생태계 확보를 추진

- 2050년 수소는 최종 에너지 소비량의 18%를 차지하고 4억대의 승용차와 2,000만대의 상용차가 활용될 것으로 예상, 이는 전 세계 자동차의 약 20%에 해당
- 올해 현대자동차 수소차 판매량은 2,879대를 기록해 수소차 판매량 세계 1위를 기록했으며, 2021년 연간 2,000대 규모의 수소전기트럭 생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2030년 수소차 50만대 대량 양산체제 구축을 목표

글로벌 수소자동차 시장 및 국내 수소자동차 시장 전망



자료 : 산업부, BNEF



(4) 미래차(전기자동차)

□ 2020년 전기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41억 달러 예상

- 2020년 9월까지 전기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78% 증가한 27.3억 달러를 기록 중
- 전기자동차 수출이 40개월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전기자동차 수출대수는 사상 처음 1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
- 수출 상위 3개국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지역이며, 9월까지 3개국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40%를 차지

□ 2021년 전기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70% 증가한 70억 달러 전망

- 글로벌 전기 자동차 수요가 초기 시장단계를 지나 본격적인 성장단계에 진입했으며, 2020년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될 경우 수요 증가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
- 전기자동차 최대 수출지역인 유럽 수요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1년 전기 자동차 수출은 전년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 국산 전기자동차는 디자인과 성능에 대해 해외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어, 당분간 수출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

전기자동차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망
					1~9월 ^P	전망	
수출액	3.2 (△7.2)	4.2 (33.7)	10.9 (159.4)	23.5 (115.4)	27.3 (0.5)	41 (75)	70 (70)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전기자동차는 MTI 741400 기준

자료: 무역협회, 2020년 및 2021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5) 5G 통신장비

□ 2020년 이동통신 장비 수출은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9.8억 달러 전망

- 2020년 1~9월 이동통신 장비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8.2% 증가한 7.0억 달러
- 주요 수출대상국은 일본(23%), 미국(17%), 중국(홍콩 포함, 12%), 베트남(10%), 인도(9%) 순
- 전년동기 대비 수출증가율은 인도가 12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베트남 59%, 일본 34% 순, 미국과 중국(홍콩 포함)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13%, 18% 감소
- 한국은 이동통신장비 후발주자이나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 기술력 제고, 미국의 중국기업 통신장비 사용 배제 등으로 해외진출 기회가 증가할 전망
- 미국은 국방수권법 등을 통해 중국기업의 통신장비 사용금지, 동맹국에 화웨이 배제를 요청했으며 영국, 일본, 호주 등이 화웨이 배제를 결정
- 삼성전자가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과 체결한 무선통신 솔루션 공급계약은 66억 달러 규모이며 계약기간은 5.5년('20.6.30~'25.12.31)으로 중장기 부품 수출 견인 기대

□ 2021년 이동통신 장비 수출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12억 달러로 전망

- 글로벌 경기 회복, 5G 인프라 투자 확대, 미국의 중국기업 통신장비 사용 배제 등으로 이동통신 장비 수출 증가 기대
- 최초의 5G 아이폰(아이폰12)이 '20년 10월 출시되면서 미국 등의 5G 투자 확대 전망

이동통신장비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망
					1~9월 ^P	전 망	
수출액	17.9 (△1.9)	20.9 (16.5)	12.6 (△39.4)	9.1 (△28.2)	7.0 (8.2)	9.8 (10.0)	11.4 (16.0)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0~2021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6) 의료·바이오

□ 2020년 의약품 수출은 전년 대비 약 70% 증가한 69억 달러 전망

- 내수시장 성장 한계 극복을 위해 수출 판로를 확대한 결과, 2014년 이후 두 자릿수 성장률 지속
- 2020년은 바이오시밀러 해외 판매 및 의약품 위탁생산(CMO) 수요 증가 등으로 수출이 전년 대비 약 70% 증가
- 2020년 들어 9월까지 월별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꾸준히 상승하여 1~9월 누계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한 48.8억 달러 추정(산업통상자원부)
- 수출액 증가는 기 출시한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해외시장 점유율 확대, CMO 수요 증가 등에 기인
- 2020년 4분기에도 수출액 증가가 이어져 2020년 전체 의약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 약 70% 증가한 69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

□ 2021년 의약품 수출은 올해 대비 약 20% 증가한 83억 달러 전망

-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 지속 기대

의약품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망
					1~9월 ^P	전망	
수출액	27.4 (19.5)	31.7 (15.8)	37.2 (17.3)	41.0 (10.0)	48.8 (65.3)	69.0 (68.3)	82.8 (20.0)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MTI 226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0~2021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7) 비대면·디지털

① 콘텐츠

□ 2020년 콘텐츠 수출은 전년 대비 8% 증가한 104억 달러 전망

- 코로나19로 재택 체류 시간이 증가하면서 콘텐츠 수요와 수출이 증가할 전망
 - 장르별 수출비중('19)은 게임 67.2%, 캐릭터 7.9%, 지식정보 6.4%, 음악 6.2%, 방송 5.2% 순으로 5개 장르가 콘텐츠 수출의 92.8% 창출
 - 전년 대비 수출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만화(13.6%), 음악(13.4%), 캐릭터(10.7%), 게임(8.9%) 순이며, 수출이 감소한 분야는 출판(△13.8%)과 영화(△9.0%)
- 신규 게임의 중국 수출은 어렵지만 게임의 수출 지역 다변화, 웹툰의 성장⁴⁾, 해외 OTT(넷플릭스 등)의 콘텐츠 구매 증가 등으로 콘텐츠 수출 증가 전망
 - 2017년 사드 배치로 중국의 한류금지령이 시작된 이후 국내 기업의 신규 게임은 중국에서 신규 판호(영업허가권)를 받지 못하고 있음
 - 한국 드라마가 아시아 주요국 넷플릭스 Top 10에 랭크되고 있어 수출 증가 전망⁵⁾

□ 2021년 콘텐츠 수출은 전년 대비 7.0% 증가한 120억 달러 전망

- 아시아를 중심으로 게임, 캐릭터, 음악, 방송 등의 수출 호조 지속 전망
 - 한중관계 개선 노력으로 중국의 한류금지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상승

콘텐츠 수출 현황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망	2021년 전망
수출액	88.1 (46.7)	96.2 (9.1)	103.9 (8.1)	112.2 (8.0)	120.1 (7.0)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콘텐츠산업 특수분류체계'에서 정의된 출판, 만화, 음악(공연 포함),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광고, 방송,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 솔루션을 포함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20년 및 2021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4) '20년 2분기 기준, 네이버 웹툰의 글로벌 거래액중 해외비중은 27%, 해외 거래액은 전년동기 대비 57% 성장

5) 8월 6일 일본 넷플릭스 기준 Top 5에 한국 드라마 3개가 랭크됨(1위 '사랑의 불시착', 2위 '사이코지만 괜찮아', 4위 '이태원 클라쓰'). '사이코지만 괜찮아'는 8월 7일 기준, 아시아 7개국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



②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⁶⁾

□ 2020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는 전년 대비 8.5% 증가한 6.5조 원 전망

- 상반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는 전년동기 대비 7.9% 증가했으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의 84%를 차지하는 면세점 판매액은 전년동기 대비 5.5% 증가
-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를 견인해 온 면세점 판매액(84%)은 코로나19로 해외여행객은 감소했으나 타이궁(중국 보따리상)의 지속적 구매에 힘입어 5.5% 증가
 - 타이궁은 코로나19로 국내 입국시 2주의 자가격리가 요구되자 입국 시 구매금액을 확대
 - 면세점은 관세청의 한시적 '제3자 국외 반송' 허용에 따라 해외 사업자에게 세관 신고를 마친 제품을 희망 장소로 배송 가능하여 중국 도매법인으로 등록된 타이 궁은 현지에서 면세품 수령 가능
- 2분기 기준, 상품군별 판매 비중은 화장품이 84.4%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 6.9%, 음반·비디오·악기 3.5% 순
- 하반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는 '제3자 국외 반송' 연장 등으로 양호한 흐름 지속 전망
- '제 3자 국외 반송'은 10월 29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연말까지 연장됨

□ 2021년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는 전년 대비 9% 증가한 7.1조 원 전망

-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는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통기업의 해외사업 강화, 점진적 국제항공 노선재개 등으로 증가 예상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현황 및 전망

단위: 조 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망
				1~6월 ^P	전 망	
수출액	3.0 (28.7)	3.6 (22.9)	6.0 (66.4)	2.8 (7.9)	6.5 (7.9)	7.1 (9.0)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2020년 및 2021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6) 면세점, 국내 인터넷 쇼핑몰(역직구) 및 아마존 등 해외 인터넷 쇼핑몰 입점 등을 통한 해외 직접 판매액 기준



(8) 친환경 선박

□ 2020년 수주량은 큰 폭의 감소

- 2020년 선박수주량(해양플랜트 제외)은 전년 대비 57.5% 감소한 420만CGT 예상
- IMO SOx 규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으로 연료비용이 오히려 낮아지며 노후선 교체 수요가 지연되고 코로나19로 인한 투자경색 분위기까지 더해지며 발주 감소
- 2020년 수주액은 전년 대비 52.4% 감소한 110억 달러 예상
- 9월 누적 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58.1% 감소한 55억 달러

□ 2021년 친환경 선박 수주량은 크게 증가, 수출액은 소폭 증가

- 2021년 선박발주는 코로나19 사태로 지연된 잠재 수요와 2022년 EU의 선박 ETS(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규제 등에 대비하기 위한 수요들이 발주되며 큰 폭의 증가 전망
- 이에 따라 한국의 수주량과 수주액은 각각 134%와 110% 증가한 9.8백만CGT와 215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친환경 선박 수주 및 전망

단위: 백만CGT, 억 달러,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망
					1~9월	전망	
수주량	2.2 (△79.3)	7.8 (246.7)	13.4 (72.4)	9.9 (△26.2)	2.4 (△59.3)	4.2 (△57.5)	9.8 (133.6)
수주액	44.2 (△81.1)	146.4 (231.1)	270.6 (84.9)	221.5 (△18.1)	54.7 (△58.1)	102.5 (△53.7)	215 (109.8)

주: ()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수출액은 11월 기준이며 해양플랜트 포함

자료: Clarkson, 산업통상자원부, 2020~2021년 전망은 해외경제연구소



5. 코로나19의 수출 영향

□ 코로나19 전개 양상에 따라 수출 증가율 변동 가능

- 코로나19 확산이 2021년 중반 이후 점차 진정된다는 가정에서 기본 전망을 제시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심화로 진정 시기가 더 늦춰질 경우 2021년 수출 증가율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 가능
- 코로나19 재확산이 심화되는 비관 시나리오 전개시 주요 수출산업 전망은 아래와 같음.

코로나19 전개에 따른 2021년 수출·수주 증가율 전망

		기본 전망	비관 시나리오
전개 상황		코로나19 확산이 2021년 중반 이후 점차 진정	코로나19 재확산 심화로 2021년말 이후에나 진정
세계 경제	IMF	5.2%	2.3%
	OECD	5%	2~3%
주요 수출 산업	반도체	5.1%	2~3%
	자동차·부품	13.0%	5%
	일반기계	8.0%	3~6%
	석유화학	6.6%	3~4%
	철강	7.7%	2%
주요 수주 산업	해외건설	8.7%	0%
	선박	109.8%	40~70%
	해운	20.9%	5%
혁신 성장 산업	의료·바이오	20.0%	30.0%
	콘텐츠	7.0%	7.0%
	미래차	70.0%	20.0%
	화장품	7.0%	3~4%

주: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수주산업은 수주액 기준